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③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③	15. ①	16. ②	17. ⑤	18. ④	19. ①	20. ②
21. ①	22. ①	23. ⑤	24. ④	25. ⑤	26. ①	27. ④	28. ⑤	29. ④	30. ③
31. ②	32. ③	33. ①	34. ③	35. ④	36. ②	37. ④	38. ④	39. ⑤	40. ③
41. ④	42. ①	43. ①	44. ②	45. ③					

[1~5] 화법

[1~2]

1. 의사소통 전략 평가

㉡은 대화 상대방인 진희가 언급한 내용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진희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여쭙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요'라는 진희의 말을 듣고 ㉢과 같이 묻는 것은 자신이 파악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고개를 끄덕이며'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고, '그렇군요.'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⑤ ㉤에서 '아, 정말 그렇겠네요.'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라고 묻는 것은 상담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2.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의 문제 상황은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다. '진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를 제시하고 있다. ④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문제 상황을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이지 <보기>의 4단계에 제시된 '해결 방안의 효과'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드라마에서 또래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는지 질문하는 것은 <보기>의 1단계에서 언급한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으로 볼 수 있다. ② '여러분은 ~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여 <보기>의 2단계에 제시된 것처럼 '문제 상황'과 청자인 '여러분'을 '연관'시키고 있다. ③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상담 동아리가 있다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보기>의 3단계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또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5단계에 제시된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해당한다.

[3~5]

3.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은 토의 진행자인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인 '최 교수'의 주된 발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여 토의 참여자의 관점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의 장단점을 요약한다.'라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은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 ② ㉡의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라는 발언은 다음에 발화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의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발언은 '최 교수'의 발화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⑤ ㉤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라는 발언에서 사회자가 두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을 종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E]는 '청중 1'의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윤 교수'의 대답이다. '윤 교수'는 먼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함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뒤 '청중 1'이 언급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라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문제의 원인은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에서, 해결 방안은 '학교에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 시설 조성 사업의 모범이 된 ○○ 지역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④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면 ~ 이를 근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에서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다.

5.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최 교수'는 문제의 원인이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 대안 마련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청중 2'는 마지막 발화에서 학교가 학생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학교 내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에는 구청이 학교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교가 원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② 학교 측의 요구보다 주민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이익 고려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라는 '최 교수'의 관점에 어긋난다. ④ 학교가 주차장 조성 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를 근거로 시설 조성을 반대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최 교수'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청중 2'의 발언에 따르면 주차장 조성 문제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는 구청의 입장과 학생의 안전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학교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지역과 학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6~10] 작문

[6~8]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의 시작 부분인 (나)의 1문단에서는 카페인의 효과,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함께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에 제시된 '글을 쓰게 된 배경' 중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음'은 반영되었지만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실태로 글을 시작한다.'라는 글쓰기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을 반영하여 (나)에서는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카페인' 등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을 위해 (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을 반영하기 위해 (나)의 2문단과 3문단의 시작 부분에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을 반영하기 위해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이 '하루에 에너지 음료 두 캔을 마시'거나 '커피 한 캔과 콜라 한 캔을 마시고 초콜렛 두 개를 먹'는 것과 같은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 해석'에 따르면 카페인 함유 식품 중 일부 액체 식품의 포장 용기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된 식품만 먹는다면 총 카페인 섭취량을 계산하여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을 먹는 경우 섭취량 계산이 불가능하여 자신도 모르게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액체 식품과 관련된 자료를 다루고 있는데 초콜릿이나 과

자, 사탕 등은 액체 식품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본문에 이미 '체중 1kg 당 2.5mg'이라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④ 카페인이 함유된 액체 식품 중에서 포장 용기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카페인이 함유된 액체 식품 중에서 포장 용기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만 섭취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⑤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액체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나)에 제시된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는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에 맞춰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하루에 섭취하는 각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양의 합이 ~ 유의해야 한다'라는 진술은 글의 목적과 흐름을 고려해 독자가 유의할 점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카페인을 섭취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과 조금 더 유의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초고의 앞부분에서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졸음이 가시고 피로감이 덜해진다고 하였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또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글의 목적과 흐름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유의할 점으로 카페인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만,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잘 알면 카페인을 덜 섭취하겠지만 잘 모르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 표현이지만, 청소년과 성인에게 일어나는 카페인의 부작용이 다르다는 것은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과 어른 흉내를 내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길'이라는 것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 표현이지만, 청소년들이 무심코 성인들을 따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피아노 계단'의 이야기를 접하고,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공간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공간 디자인 작품인 피아노 계단을 예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고려하는 직업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②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공간 디자이너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를 열거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피아노 계단이 '그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고 하여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작품의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10.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글쓴이는 피아노 계단과 같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곳을 찾아간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 수정 요청 사항'은 이러한 공간 디자인 작품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③과 같이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므로 제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시각 자료에 해당하며 이를 첨부하면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⑤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면 예상 독자인 교지를 읽을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나의 삶만'에서 '삶만'은 명사 '삶'에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 '만'이 결합한 경우로,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ㄻ'을 [ㅁ]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삶과 자연'의 '삶과'는 명사 '삶'에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 '과'가 붙은 경우로,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ㄻ'을 [ㅁ]으로 발음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② '국수를 삶고'의 '삶고'는 '삶다'의 어간 '삶-'에 자음으로 시작된 어미 '-고'가 결합되는 경우로,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ㄻ'을 [ㅁ]으로 발음한다는 ㉠과, 겹받침 '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어말에서 겹받침 'ㄻ'을 [ㅁ]으로 발음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④ '삶에 대한 의지'의 '삶에'는 명사 '삶'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에'가 붙은 경우로,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겹받침 'ㄻ'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면 뒤의 'ㅁ'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에 따른 결과이다.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⑤의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일찍이'가 된 것이므로 ㉢의 '더욱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더욱이' 역시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부사 '더욱이'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급히'는 '급하다'의 어근 '급-'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꾸준히' 역시 '꾸준하다'의 어근 '꾸준-'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②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방긋이'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생긋이' 역시 부사 '생긋'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③ '많이'는 '많다'의 어간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같이' 역시 어간 '같-'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④ '깊이'는 '깊다'의 어간 '깊-'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굳이' 역시 어간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13. 높임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말씀'은 말하는 이(경준)가 높이는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있었니'가 아니라 '있으셨니'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서술어 '준비하다'의 주체는 '경준'이기 때문에 영희의 입장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③ ㉢에서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묻다'가 아니라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특수한 동사 '여쭈다'를 써서 말해야 한다. ④ ㉣의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이 대명사가 영희가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당신'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⑤ ㉤의 주체는 영희의 입장에서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실현하여 '말씀하셨잖아'라고 말해야 한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크다[2]'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작다㉢'과 반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크다[2]'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꾼 '키가 몰라보게 작는구나.'가 성립되지 않는 점이나, [반의어] 표시가 '작다'와 '크다[1]'의 사이로 한정된 점을 통해서도 '크다[2]'와 '작다㉢'이 반의 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크다[1]'과 '크다[2]'에 각각 [형]과 [동]의 국어사전 약호가 붙은 것을 통해 전자는 형용사이고 후자는 동사라는 품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크다[1]㉠'과 '작다㉠'은 반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눈이 작다.', '글씨를 작게 적는다.'는 '작다㉠'의 용례가 될 수 있다. ④ 뜻풀이를 고려할 때,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는 '작다㉡'의 적절한 용례이다. ⑤ '작다㉢'의 뜻풀이를 고려할 때, '작은 실수를 하다.'는 적절한 용례이다.

15.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의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물에'는 목적어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라, '넣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개선된다'를 '개선된다는 것이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서술어가 호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③ ㉢에서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를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불편을'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 '겪고'를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④ ㉣에서는 '운동을 동참합시다'를 '운동에 동참합시다'로 수정하였는데, 서술어 '동참합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의 조사를 '에'로 올바르게 고친 것이다. ⑤ ㉤에서는 '여간 기쁜 일이다'를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로 수정하였는데,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뜻하는 부사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기 때문에 '일이다'를 '일이 아니다'로 수정한 것이다.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중세 국어 '업던'과 현대 국어 '없던'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인 이어 적기(연철, 連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ㄷ'이 'ㅣ' 모음 앞에서 'ㅈ'으로 변하지 않고 '모딘'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하ᄂᆞᆯ히'에는 'ㆍ'가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모음이다. 일반적으로 음소로서의 'ㆍ'는 18세기에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ㅗ'와 양성 모음 'ㅐ'가 어울려 '모새'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ㅗ'와 음성 모음 'ㅔ'가 어울려 '못에'가 된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⑤ '열ᄇᆞᆫ'에는 'ㅸ(ㅂ순경음)'이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다. 'ㅸ'은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현대 국어 '고와, 구워'의 사례에서처럼 'ㅸ'이 [w]로 변하여 이중 모음을 형성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17~30] 독서

[17~21] 인문, '맹자의 '의' 사상'

지문해설 : 이 글은 맹자의 '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 추구가 배제된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맹자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하여,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다.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한 맹자는 인간에게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

17.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문단에서 맹자의 '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을 소개하고, 2~6 문단에서 맹자가 제시한 '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②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③ 맹자의 '의' 사상의 뿌리인 공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상반된 관점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④ 맹자가 당시에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는 설명은 있으나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1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맹자는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또한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규정하고, 유비적 확장을 통해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그러므로 맹자는 '의'보다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서 맹자는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6문단에 따르면, 맹자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였다. ③ 3문단에서 맹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맹자는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으며,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옳고 그름

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결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덕의 내재성을 강조한 ㉠과는 거리가 멀다. ③ 도덕은 성인이 만든 것이고 인간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도덕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과 맞지 않는다. ④ 군자나 소인이나 모두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므로 도덕의 선천성을 강조한 ㉠과는 관련성이 적다. ⑤ 원래부터 어른으로 대우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도덕의 내재성을 강조한 ㉠과 거리가 멀다.

20.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묵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맹자가 강조한 '의'는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의 '정당성'이라는 공자의 사상을 강조한 것인 반면, <보기> 묵적의 '의'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맹자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으며, <보기>에서 묵적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의'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맹자는 인간이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보기>에서 묵적은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맹자는 '의'를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으며, <보기>에서 묵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21.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경도'는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은 '오인'의 의미이다. **정답 ①**

[22~25] 예술,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를 먹으로 그린 '묵란화'를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희가 25세 때 그린 '석란'은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의 그림으로, 전형적인 양식을 빌어 당시 문인들이 지녔던 공통적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배 생활 이후 말년에 그린 '부작란도'는 거친 갈필을 사용해 뒤틀리고 꺾인 난초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쓸쓸하고 황량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묵란화에 나타난 추사의 작품 세계

22.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김정희의 두 작품 '석란'과 '부작란도'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김정희의 평탄했던 젊은 시절의 화풍과 오랜 유배 생활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가져온 변화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후대 작가의 작품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묵란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바탕으로 김정희의 작품과 삶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나, 특정한 입장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 또한 언급되지 않았다. ④ 김정희의 두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석란'과 '부작란도'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라고 하여 묵란화에 서예의 필법이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김정희의 말년의 작품인 '부작란도'에 서예의 필법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묵란화는 '여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묵란화는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는 잎은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함께 그려진 '꽃대'나 '꽃송이'에서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꺾인 잎'에서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김정희가 25세에 그린 '석란'에는 평탄했던 젊은 시절 김정희가 지녔던 이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는 잎은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묵란화는 문인들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2, 3문단에서 '석란'에는 평탄했던 젊은 시절 작가가 지녔던 이상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문단에서 '부작란도'에는 '문인 공통의 이상'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까지 충실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 그려진 난초는 작가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이 나타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김정희는 '부작란도'에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보기>의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기존에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따라서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는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하였다. 4문단에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부작란도'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추사체를 창안한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이 감동을 준다고 하였다.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김정희는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참모습'을 표현해 내었다. 따라서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시, 서예, 그림은 문인들에게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문인들이 시, 서예, 그림 각각의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익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6~28] 사회,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을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은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화'와 '경영화'를 도입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민간화'와 '경영화'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공동체 의식 고양,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

2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민간화'와 '경영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각 개인들의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공동체 의식 고양을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의 기대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그동안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화'와 '경영화'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체의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27.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은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② ㉡은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③ ㉠과 ㉡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⑤ ㉠과 ㉡은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므로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주민 투표 결과 찬성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해졌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 것이 아니다. ② <보기>에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으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 아니다. ③ <보기>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보기>에서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지지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29~30] 과학, '점탄성체'

지문해설 : 이 글은 점성과 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탄성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탄성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되지만 힘을 제거하면 즉각적으로 원형을 회복하는 성질로,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성'을 가지고 있다. 점성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서서히 변형되는 성질로,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체를 점탄성체라고 한다.

점탄성체의 물리적 성질을 잘 보여 주는 현상으로 응력 완화와 크리프가 있다. 응력 완화는 물체가 변형된 상태로 있을 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고무줄을 당긴 상태로 고정해 두면 고무줄 분자들의 배열 구조가 서서히 변하여 응력은 줄어들게 된다. 크리프는 물체에 일정한 응력을 가했을 때 물체가 서서히 변형되는 현상이다. 고무줄을 일정한 힘으로 당기면 고무줄은 서서히 늘어나게 된다.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점탄성체이며 분자나 원자 간의 결합 및 배열 구조, 온도에 따라 변형 속도가 달라진다.

[주제] 점탄성체의 개념과 물리적 특성

29.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유리창의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은 유리창에 일정한 응력(중력)이 작용하여 서서히 변형되는 것이므로 크리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힘에 의해 즉각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하는 것이므로 '시간 지연성'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용수철의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성'을 갖는 것을 탄성이라고 하였다. ② 5문단에서 같은 온도(상온)에서 나일론은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은 인지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물질의 유동성 정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분자들의 위치가 변하여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난다고 하였으므로 분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⑤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하는 힘이므로 꿀이 받는 힘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된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가)에서 기타 줄을 늘어나게 당긴 후 고정했을 때 기타 줄의 길이는 그대로였지만 팽팽한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응력이 감소되는 응력 완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5문단에서 나일론과 같은 물질의 응력 완화는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의 경우 너무 느리게 일어나 관찰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

로 금속 재질의 기타 줄을 사용하면 응력 완화가 느리게 일어나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더 느리게 감소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타 줄을 풀자 원래의 길이가 되었다는 것은 물체에 가한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인 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기타 줄을 당겨서 고정시켜 놓았는데,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응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응력 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책의 무게는 일정하기 때문에 선반에 작용하는 응력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는 응력에 의해 선반이 서서히 변형된 것이므로 (나)의 예는 크리프를 보여주는 것이다. ⑤ 5문단에서 온도를 높임에 따라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가속화된다고 하였으므로, 온도가 높은 여름에 크리프에 의한 변형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45] 문학

[31-33] 현대시 -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김종길, '고고(孤高)'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해설 : (가)는 모란이 피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모란을 보내는 서러움을 표현함으로써 기다림의 정서와 상실의 설움을 대응시키며 모란으로 상징되는 소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시의 중심 소재인 모란은 화자에게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이며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참고 기다리고 또 우는 것도 모두 모란이 피고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에게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쁜 시간이지만 모란은 곧 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화자는 모란이 피어 있는 잠깐의 시간을 위해 삼백 예순 날을 기다리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에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나) 김종길, '고고(孤高)'

(나)는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통해 삶의 고고한 자세를 환기시키면서 북한산이 제 높이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북한산은 신록이나 단풍, 혹은 적설, 또는 안개 낀 상황에서는 제 높이를 나타낼 수 없다. 그 이유는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고 '왼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 되어야 그 고고한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산이 그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그런 기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아울러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고한 삶의 자세 지향

3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1~2행과 11~12행이, (나)는 1연과 6연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는 첫 연과 끝 연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처럼 일부 행이 같은 내용과 비슷한 문장 구조로 반복되거나 (나)처럼 첫 연이 마지막 연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한 시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거나, 반복되는 부분의 내용이 강조되거나, 운율을 형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다. (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주제 의식이, (나)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날을 기다리며 그와 같은 고고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주제 의식이 담긴 부분이 반복되며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한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없다. ③ (가)의 11~12행이 어순의 도치를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순을 도치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는 어순이 도치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나)는 '수묵'이라는 시어가 흑백의 대비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눈으로 덮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흑백의 대비를 떠올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는 모란꽃의 색깔이 연상되고 흑백의 색채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흑백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가)는 모란이 핀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나타낸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이기 때문이다. (나)의 '~려면'이라는 표현을 가상의 상황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표현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3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의 대상인 북한산이 고고한 아름다움을 보이려면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 가볍게 눈을 쓰고' 있어야 한다. 즉 대상의 높이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이지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나'가 모란이 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라는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② (가)에서 대상(모란)은 짧은 시간 동안만 피어 있다. 시의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 년 중 '삼백예순 날'을 제외한 5일 동안만 모란이 피어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5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만 모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한다. 오랜 기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소중하며 더 아름답게 느낀다는 것이다. ④ (나)에서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은 2연과 3연에, 그렇지 않은 순간은 4연에 드러나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 ⑤ (가)는 봄,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3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설움'은 ㉠ '나의 봄'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의 봄’이 끝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일 년 중 ‘삼백예순 날’을 제외한 날, 혹은 사계절 중 봄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을 ‘한 해’가 다 갔다고 할 정도이므로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③ ‘찬란한 슬픔’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을, ‘슬픔’은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설움을 뜻한다. 역설적인 표현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찬란한 슬픔’은 화자의 감정을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④ 백운대와 인수봉이 ‘고고한 높이’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왼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즉 ‘어느 겨울 이른 아침’이 ㉡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은 ‘눈이래도 왼 산을 뒤덮는 적설’이어서는 안 되고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정도의 눈이어야 경험할 수 있다.

[34-37] 현대소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각각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1부는 병식의 눈으로, 제2부는 병국, 제3부는 아버지, 그리고 제4부는 작가가 직접 개입하여 서로 이질적인 인물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아버지의 정신적 상처를 통한 실향민들의 한, 병국의 퇴학, 공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등 현대 사회의 문제와 지식인들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도요새’는 아버지와 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적 유대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곧 아버지에게는 고향을, 병국에게는 정신적 자유를 상징하는 이 ‘도요새’는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제2부로 대학에서 제적당한 병국이 낙향하여 실의에 빠져 지내던 중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진강 주변의 환경 파괴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주제] 비극적 역사 현실과 산업화의 폐해로 훼손된 인간성 회복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은 ‘나’가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나고 나서(체험) 도시의 생활 환경이 자연을 파손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됨을 보여 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어리숙한 인물이라 할 수 없으며, 진술이 해학적인 부분도 없다. ②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인 ‘나’는 사건의 주인공이며, ‘나’는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 입장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⑤ 제시된 부분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35.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에서 도요새의 재잘거림을 환청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A]에 제시된 것과 같은 생각을 '나'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물이 대상(도요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도요새는 '나'에게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고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를 '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새가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는 것은 '나'의 머릿속이 대상(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의 진술을 보아도 '나'는 대상(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② '나'는 대상(도요새)을 찾아 헤매었으나 대상(도요새)은 이미 시베리아 등으로 북상한 뒤여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대상(도요새)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의 사고는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굳게 닫힌 문'의 상태이다. 이러한 '나'의 사고를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았다고 했으므로 '나'의 의식이 도요새에 의해 각성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나'가석교천과 동진강을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수천 번 반복하여 자기 최면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스스로의 다짐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세뇌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나'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뜻한다.

3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는 도요새가 사람처럼 말을 하도록 하여, 즉 우화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 부분에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A] 부분에서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는 떠올릴 수 있으나 도요새 무리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갈등 해소 과정도 보여 주지 않는다. ④ [A] 부분에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을 비행경로라고 오해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 부분에서 도요새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지문의 '도요새'는 '나'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고, <보기>의 '매화'는 어리고 성기어서 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꽃을 피우고, 암향이 부동하기까지 하여 화자가 경이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요새'가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도요새와 같은 자연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 오염을 극복하겠다는 '나'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자신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화'가 화자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매화'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일 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 '도요새'는 '나'의 의지와 욕망을 대리 표현한 소재라고 볼 여지가 있다. [A] 부분에서 '도요새'가 한 말은 사실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는 아니다.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라 볼 수 없다. 제시된 부분에 '도요새'는 실제로 등장하지 않으며 '나'가 자신의 의식을 강화하고 표현하기 위해 동원한 자연물에 가깝다. '매화'는 화자가 두고 보아 온 존재로 굳이 말하자면 화자와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한다.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어리고 성긴' 상태에서도 꽃을 피워 내고, '암향부동'까지 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8~42]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작품해설 :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군담 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영웅 유충렬의 일생을 그린 것으로 영웅 서사의 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인간계로 귀양 온다는 설정을 통해 적강(謫降) 소설의 면모도 보이고 있다. 주동 인물인 '유충렬'과 반동 인물인 '정한담'은 각기 충신과 간신의 전형을 보여 주는데, 이들의 대립을 통해 조선 후기 혼란한 사회 질서 속에서 '충(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 행적

3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등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으며, 충렬, 태자, 유심 등의 발화에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작품 전체의 시간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 시대이지만, 지문에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② 지문에는 꿈속의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서술되어 있다. ③ 지문에는 초월적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 세계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⑤ 전쟁의 경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전쟁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39.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자는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다. 다만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과인을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천자가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는 모습과 '그대는 ~ 살리는가?'에서 충렬에 대한 천자의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을 원통히 여기며 통곡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어지는 내용에서 유심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유충렬의 슬픔에 모든 군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를 통해 유충렬이 태자의 모습에 감화되어 천자를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주나라 성왕'이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런 말을 말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유충렬의 견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렬의 마음을 돌려 천자를 돕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장은 ~ 충렬입니다.'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으며, '예전에 ~ 있습니까?'라고 말함으로써 천자의 전행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하해 같은 ~ 풀을 맺어 갚으리라.'와 같이 보답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충렬에게 원망을 풀고 천자를 위해 싸워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⑤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울 것을 요청함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충렬은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모친을 만나 돌아오게 된다. 이는 국가 위기의 해소가 가족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친 유심의 유배가 충렬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가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 귀양을 간 사건이 충렬이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한 것은 가족 위기의 해소로,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은 국가 위기의 해소로 볼 수 있다. 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에서 국가 위기를 해결한 유충렬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영웅으로의 귀환을 확인할 수 있다.

42. 어휘 및 어구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은 '감정이나 욕망, 흥취 따위를 억누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의 '분을 이기지'에서 '분'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의미하므로, '이기지'는 '감정을 억누르지'의 의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는 '몸을 곧추거나 가누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과 ⑤는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④는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승부를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3~45] 고전시가 - 조위, '만분가'

작품해설 : 조위가 지은 가사로, 연산군 때 무오사화에서 간신히 죽음을 면한 작가가 순천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임을 잃은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충신연군지사(忠臣戀君之辭)를 노래하고 있지만, '만분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귀양 간 처지의 원통한 심정을 하소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천상에서 하계로 추방된 자가 옥황상제로 비유된 성종에게 하소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작품을 지은 의도가 굴원의 '천문(天問)'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철의 '사미인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제] 유배당한 처지에 대한 원통함과 연군의 정

43.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두견의 넋이 되어',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두견', '구름'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면에 나타난 의미와 숨은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반어적 표현이나 대상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 기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확인하기 어렵다. ④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빗대어 비웃는 풍자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 가렸으니'와 같은 묘사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경물(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의 변화를 보여 주는 구체적 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44. 시어 및 소재의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지척에 나아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뢰리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구름'이 되어 시적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구름'은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소재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꿈이라도 갈동 말동'에서 알 수 있듯이 '구만리'는 화자와 대상 사이의 먼 거리를 의미한다. ③ '흘리 날아', '날아올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은 '구름'이 된 화자를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후신인가'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을 굴원이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함께 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백구'는 화자의 벗이 되고 있다.

4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보기 1>의 '연군의 마음'이라는 진술을 통해 지문이나 <보기 2>에 있는 '임'은 임금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③에서 [C]의 '백옥 같은 이 내 마음'은 임을 위해 지킨 마음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나]의 '옥 같은 얼굴'은 임의 얼굴에 해당하므로 이는 임금의 얼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싀어지어 ~ 두견의 넋이 되어', '싀어지어 낙월이나 되어 있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임과 만나는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한다. ② '쓸커시 사뢰리라', '슬카장 삷자 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마음껏 임금께 말씀드리고 싶어 한다. ④ 임금 곁을 떠나 '일모 수죽'이나 밤중 '모첨'에 처해 있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냉박할사', '찬 자리'와 같은 차가운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⑤ '임 계신 데'를 바라보는 화자와 '임이 어디 간고'라고 탄식하며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연군의 정을 확인할 수 있다.